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유형에 관한 연구

: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김 태 형*

김 미 현**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유형과 두 지표의 수준과 격차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여가 활동과 문화향유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감 증진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치구별로 당면한 현황과 문화향유 유형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향유 유형을 문화향유형, 문화안주형, 문화도약형, 문화빈곤형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8년과 2012년을 대상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치구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12년 서울시의 문화향수 수준은 하락하였으나 문화환경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문화향유형과 문화빈곤형에 속하는 자치구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문화안주형에 속하는 자치구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반영하여 연계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 목표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간의 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공고히 하여 개별 자치구간의 공존과 문화환경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주제어: 문화향유 유형, 문화환경, 문화향수

I. 서론

도시는 주거, 환경, 복지, 행정,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문화복지(Cultural Welfare)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도시 정체성(identity) 구축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이 도시 경영의 보편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수요와 소

* 제1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비의 증가가 개인의 행태와 역할 변화를 가져왔고 도시의 문화자본 또한 발전하였으며(강호진, 2004: 23),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 등의 문화혜택의 제공을 비롯하여 지역 문화시설에 대한 공급을 늘려 문화예술향유가 증대되었다(김수현 외, 2013).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2000년 이후 문화정책과 문화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였고, 지역축제와 문화복지시설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었다(김주원, 2003; 서희석 외, 2000).

도시의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에 대한 개념은 정신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무형의 재화임과 동시에 경제적 재화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즉, 문화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미지, 인상 등 비가시적인 측면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를 통한 지역 마케팅, 지역 경쟁력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맥락에서 시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화정책은 크게 문화 인프라 조성, 문화예술 생산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 향유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된다(정광호, 2010: 272). 여기서 문화향유와 문화환경(인프라)에 대한 이해는 문화정책의 중요한 성과척도이자 정책수립의 정당성에 대한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 도시의 문화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문화에 대한 수량적 가치와 객관적인 향유 수준,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주어진 문화적 자산에 대한 단순한 수량과 시민의 문화향유 정도에 대한 측정기준인 문화지표만을 생산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은 측정항목의 대표성, 표준화방법, 측정항목 중요도, 지표에 대한 향유 산출 산식, 비교단위 설정 등에 대한 통일된 방법이 없었고, 대체적으로 UNDP(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삶의 질을 계량화하여 발표하는 표준화 방법을 응용 및 적용하여 진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방법은 개별 지역단위의 특성을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이재호 외, 2010: 106). 또한 문화 실태를 각 지역마다 평균적인 기준점에 비교하기 위한 표준화된 종합 수치 작업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단순 통계치를 가공하거나 지수화 하지 못하고 절대 가치만을 부여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화통계나 문화지표만을 활용함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문화지수를 측정하지 못하였다(배태영, 2010: 218). 실제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는 소득, 학력,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김수현 외, 2013), 국민들의 문화소비와 문화예술향수 확대를 위해서 정책설계단계에서 문화수요의 크기와 특성 육구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정철현 외,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각 2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 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횡단면,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문화향수 수준과 문화환경 만족도 간의 상관성, 두 지표의 수준과 격차, 자치구별 패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서울시의 문화 현상을 해석하고 서울시 문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자료는 2008년과 2012년 매년 약 4만 8천 명의 서울시민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된 서울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서울시는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한강 르네상스, 세계디자인패션 중심지 조성, 문화관광벨

트 주성, 세계적 축제 개최 등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문화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백대흠 외, 2008).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문화사업들이 실제 문화를 향유하는 각 지역의 서울시민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객관적인 문화 향유 수준 및 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 및 만족도에 기반한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의 객관적·상대적인 문화실태를 비교 진단하고 향후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II. 이론적 논의

1. 문화향유의 개념 및 측정

문화향유에 대한 용어나 학문적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문화향유는 스스로 문화를 즐기고 누린다는 개인의 의지에 대한 표현과 연관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이재호 외, 2010). 문화향유는 문화소비와 유사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문화소비는 문화창작물 또는 문화활동이 생산되고 공연이나 전시 등을 통해 유통되어 소비자가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므로(류태진, 2008), 문화소비와 문화향유는 같은 의미로 구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김수현 외, 2013: 525).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 마다 조사하고 있는 문화향유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향수는 예술행사 매체 이용 실태 및 참여 활동,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의향, 문화예술 공간이용 실태 및 방문의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향유의 수준은 질적인 개념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의 향유가치가 다른 사람보다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거나 아니면 낮다고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자산 등의 기반 자체가 많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문화향유에 있어 그 수준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문화 관련 시설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문화향유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실제로 문화는 시민의 관심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향유 정도를 의미할 때는 수량적 개념보다는 수치적 개념을 활용해야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가 용이하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측정 지표들을 기준으로 향유실태를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거나 누리려고 하는 문화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찾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차별적으로 정책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문화향유와 관련된 목적차원의 가치는 이념이나 기타 정책 환경에 관계없이 문화정책이 일반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들로서도 중요하며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공급 측면에서는 선택의 문제를 지니게 된다(정홍익 외, 2008). 이렇게 선택된 시민의 향유가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 정치, 일상생활 등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역주민에 심어주어 비급전적이지만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으로 인식하여 이를 창조하는 경제

적 가치이다(이재호, 2007).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차원에서 시민이 바라는 문화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그 문화향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찾아내고 국가와 연계한 문화 육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적절한 정책과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 등 환경적 요인으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 되었으며 특히 문화를 경제적 재화의 하나로까지 인정하게 되면서 시민의 문화향유 가치는 문화 경쟁력의 향상이 지방자치단체,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 향상의 요체로 강조되기 까지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정책 추진 관련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도 성공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집행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R.J. Patti., 1983; 이재호 외, 2010에서 재인용).

2. 선행연구 검토

문화향유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 차이에 대한 연구(조광익, 2006), 둘째,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김종한, 2002; 라도삼, 2006), 또는 농·어촌, 비수도권 지역 등 소외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이대희, 2003; 류태건, 2008; 정지영, 2009). 이 밖에도 문화환경의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의 향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 관련 선행연구

| 연구자 | 분석내용 | 결과 및 특징 |
|---------------|---|--|
| 강호진 (2004) | - 서울시의 문화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주민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 | - 품질 요인으로는 능력과 공감성, 접근가능성, 비용능률성, 신뢰와 대응성, 이용편리성, 시설유형성을 제시 - 서비스 품질 요인은 주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주민만족도는 재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즉, 주민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용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이용요금 책정과 지방자치 참여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주장 |
| 김주원 (2003) | - 강원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분석 - 강원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33개 지역을 도시(동)지역과 농촌(읍·면)지역으로 나누고 다시 시 단위에서는 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원격지형으로 분류함. 또한 농촌지역은 군청소재지 읍지역, 일반면지역, 원격지면 지역으로 나누어 현지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으로 실시 | - 지역을 유형화하여 문화와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실제 의견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으나 서울지역의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을 분류하는 데에는 지역의 특성 차이로 인한 차이가 나타남 |

| | | |
|---------------------------|---|--|
| <p>서울연구원 (2002)</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및 문화생활 실태와 서울시와 자치구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문화욕구와 향유실태의 조사를 토대로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바람직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함 - 서울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중간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문화행정 공무원, 문화예술단체 종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서울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에 대해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남¹⁾ |
| <p>최정민·박종웅 (2013)</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정책 중 하나인 문화바우처의 사업효과와 수혜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바우처의 효과와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효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이용만족도, 향후 재이용, 타인추천의사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제도 변화, 지원금 적절성, 공연 내용, 이용 편리성, 이용자 적절성, 바우처 인지 등을 측정함 |
| <p>백대흠·김세용 (2008)</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별 문화 정책과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함. 정책 차원에서는 환경만족도, 관련조례, 관련예산 등을 분석하였고, 문화시설 면에서는 기반시설과 이용실적, 문화재 현황 등을 검토함. 마지막으로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행사과 문화교실, 문화축제 등을 토대로 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별 분석과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 - 지역별 분석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p>이강일 (2007)</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역을 학교문화, 가정·사회의 여가문화, 사이버 공간으로 나누어 문화향유 만족도, 문화 이용시간, 공간, 문화프로그램 내용, 문제점 등을 학년별, 성별로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향유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향유의 특징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관련 실무자들이 해당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 |
| <p>정철현·황소하 (2010)</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마케팅 기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258명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력, 부모의 문화예술 관람, 성년기 예술교육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함 - Andreassen의 공연예술 수용단계 이론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계층을 구분하여 이에 따라 문화향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술마케팅 기법을 제시함. 문화향수 계층별로 문화향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문화향수 수준에 따른 유형의 특징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 <p>김현·장호성 (2012)</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여가 결정요인과 여가만족에 대해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결정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관계지향 및 참여형, 자기개발 추구형, 여유 추구형, 접근성 추구형 등의 4가지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른 결정요인이 성별, 여가활동유형, 여가정보 습득경로, 이주유형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도출 |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실태나 문화욕구,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별 비교를 통해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화향유의 유형화를 제시하고, 그 유형화 틀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백대흠 외(2008)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 지표개발을 통해 지역별 분석과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점이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문화향수 수준과 문화환경 만족도를 중심으로 유형화 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가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김현 외(2012)의 연구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공통된 특징에 따라 여가를 유형화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기준으로 문화향유 유형을 제시하였다.

3. 유형화 틀 제시

문화체육관광부(2008)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국민의 생활시간 중 하루 평균 약 4시간 50분 가량의 여가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을 기준으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규모 중에서 여가소비의 지출이 약 7.2%(33조원)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가는 다학제적 의미를 갖고 있고,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미디어 활용 및 취미생활, 종교 활동,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김현 외, 2012: 103). 여가활동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에 주요한 영향요인이고, 이러한 여가활동과 문화향유를 통한 만족감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서는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행복감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agheb & Griffith, 1982; Spiers & Walker, 2009).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 증진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수 수준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고, 자치구별로 당면 현황을 파악하여 보다 질 높은 문화생활 향유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두 축으로 하여 유형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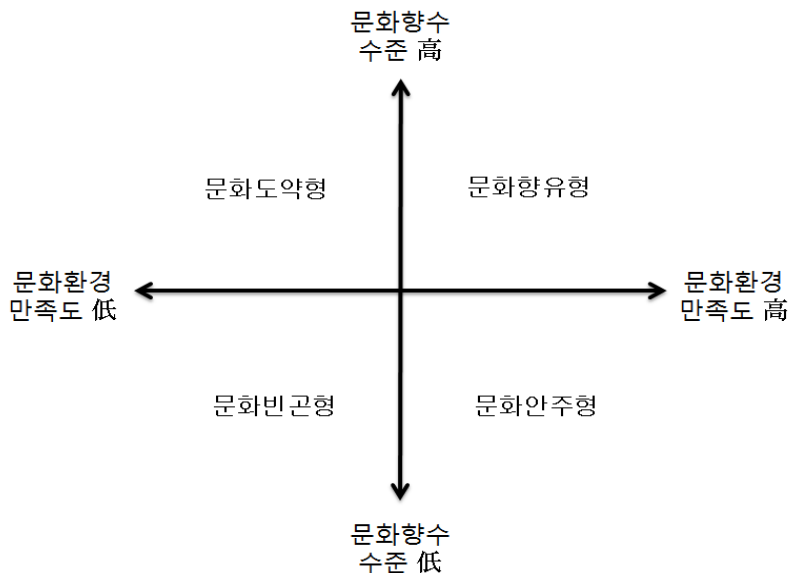
문화향유의 유형화 틀을 위의 두 축으로 제시한 것은 문화향수 수준이 높더라도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5대 권역별로 지역의 유형을 분류한 것은 문화향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통된 문화향유 현황을 특징과 문화환경 만족도에 따른 분류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문화향유를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문화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이

1) 또한 2003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도심권(종로, 중구, 용산),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등 5대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역 분류는 문화향수 수준과 만족도를 반영하는 기준틀로 활용하기에는 문화향유 실태를 반영한 공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기된다. 문화지표 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문화향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정책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을 지자체 간 경쟁 우위의 선점과 정체성 확립,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문화향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시점이다(이재호 외, 2010: 106).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문화향유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수준과 문화환경 만족도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 설계와 집행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백대흠 외(2008)의 연구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인 문화향유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는 데에 참고하였고, 김현 외(2012)의 연구는 지역주민의 행태와 지역의 특성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향유 유형화 틀을 다음의 <그림 1>,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문화향유형, 문화안주형, 문화도약형, 문화빈곤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문화향유형은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문화향수의 유형 중 가장 선도적인 자치구가 속한 그룹으로 볼 수 있다.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서울시 문화정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문화안주형은 문화환경 만족도는 높지만 문화향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을 가리킨다. 문화안주형에 속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문화향수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여 문화향유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 번째, 문화도약형은 문화환경 만족도는 낮지만 문화향수 수준이 높은 자치구가 속한 유형이다. 네 번째, 문화빈곤형은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을 의미한다.

<그림 1> 문화향유 유형화



〈표 2〉 문화향유 유형 및 특징

| 유형 | 유형화 기준 | | 특징 |
|-------|----------|---------|------------------------------|
| | 문화환경 만족도 | 문화향수 수준 | |
| 문화향유형 | 높음 | 높음 |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이 모두 높은 자치구 |
| 문화안주형 | 높음 | 낮음 | 문화환경 만족도가 높고 문화향수 수준이 낮은 자치구 |
| 문화도약형 | 낮음 | 높음 | 문화환경 만족도가 낮고 문화향수 수준이 높은 자치구 |
| 문화빈곤형 | 낮음 | 낮음 |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이 모두 낮은 자치구 |

Ⅲ. 조사설계

1.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화환경만족도와 문화향수수준의 관계를 측정하고 각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서베이(Seoul Survey) 도시정책지표조사」의 2008년과 2012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 자료의 일부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상, 주거여건, 관심사, 가치관 등 서울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고 시정운영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 자료이다(<http://stat.seoul.go.kr>). 본 연구에서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공개한 2008년과 2012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http://data.seoul.go.kr>). 2008년과 2012년은 제 33대, 34대 오세훈 서울시장(2006.7.1~2011.8.26)과 제 35대, 36대 박원순 서울시장(2011.10.27.~2015년 현재)이 서울시정을 운영한 기간에 해당한다. 각각 집권 3년차와 2년차 시점을 분석 범위로 설정한 것은 첫째, 집권 첫째 시점에 비해 2~3년차에 접어든 시점이 첫째 시점에 설정한 문화정책 집행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문화환경 만족도 및 문화향수 수준의 안정적인 측정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지표문항이 서울서베이는 매년 동일하게 조사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측정하는 동일 문항이 오세훈 시장 집권 2년차에 해당하는 2008년, 그리고 박원순 시장 집권 3년차에 해당하는 2012년에 해당하여 두 시점의 변화와 차이를 비교하였다²⁾.

2) 본 연구는 10년간의 방대한 시계열적 자료의 구축과 분석에 앞서 탐색적 연구로서 각각의 시장 집권 2-3년차에 해당하는 두 시점의 변화와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간의 방대한 자료구축을 통한 서울시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의 변화상을 정밀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서베이는 가구조사로서 설문지 및 수집 자료가 가구주와 가구원 데이터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매년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한 표본 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표본 수

| 연도 | 표본 수(명) |
|-------|---------|
| 2008년 | 42,191 |
| 2012년 | 49,758 |
| 전체 | 91,949 |

이에 더하여 자치구별 유형 비교 분석시에는 경제적 부와 문화만족도 수준과 문화향유수준을 비교하였다. 경제적 부는 자치구별 재산 수준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합산값으로 산출하였다. 자료는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에서 지방세 징수 현황을 이용하였다. 이 외에 자치구별 유형과 문화관련 조례나 문화 사업·시설 등은 해당 자치구의 문화재단이나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별 자치구별로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의 현황을 검토하고, 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문항번호에 차이가 있고,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질문과 하위 문항이 동일하게 구성된다. 문화향수 수준은 스포츠, 영화, 미술관, 전통문화, 박물관의 연간 방문횟수에 대한 문항을 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의 세부 특성을 살펴보면, 합동(pooled) 횡단면데이터임을 알 수 있다. 합동 횡단면데이터는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패널데이터와 동일하지만, 서로 상이한 개체가 매 시점에서 조사되기 때문에 패널데이터와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서울서베이 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인을 대상으로 매해 조사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종단면데이터라고 정의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개인이나 회사, 가구, 국가 등의 개체일 경우 패널데이터라고 혼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민인식 외, 2012).

통계적 분석은 Stata 11.2를 활용하였다.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스포츠, 영화, 미술관, 전통문화, 박물관)을 유형화함에 있어서 각 지표의 값을 Z-score로 치환하여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 치환된 값을 토대로 각 25개 자치구를 네 가지 유형의 사분면에 위치시켜 자치구 간 상대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표준화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전체 자치구들의 평균으로부터 해당 자치구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개별 자치구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좌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3. 변수 및 측정지표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문화향유 유형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변수 및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은 2008년도와 2012년에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서베이(Seoul Survey) 도시정책지표조사」의 설문문항 중 관련된 문항의 응답 평균값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재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상대적 문화향유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문화유산(문화재, 박물관), 체육 및 수련시설 이용, 전시 및 예술행사 관람, 여가활용, 대중문화 향유, 도서관 이용 등 6개의 항목을 활용하고 있다. 재산 수준은 서울통계의 ‘지방세 징수 현황’ 지표 중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의 합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변수 및 측정지표

| 변수 | 측정지표 |
|----------|--|
| 문화환경 만족도 | • 서울서베이 설문문항 중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문항의 평균값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
| 문화향수 수준 | • 서울서베이 설문문항 중 ‘전시회, 박물관, 전통예술공연, 극장, 스포츠경기 관람’ 횟수의 평균 값 |
| 재산 수준 | • 서울통계 ‘지방세 징수 현황’ 지표 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합 |

IV.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표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2008년과 2012년을 중심으로 표본수와 문화향수 수준, 문화환경 만족도, 거주기간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2008년에는 42,191개의 표본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2012년에는 49,758개의 표본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에 비해 2012년에는 문화환경 만족도의 평균값은 향상되었고, 문화향수 수준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5〉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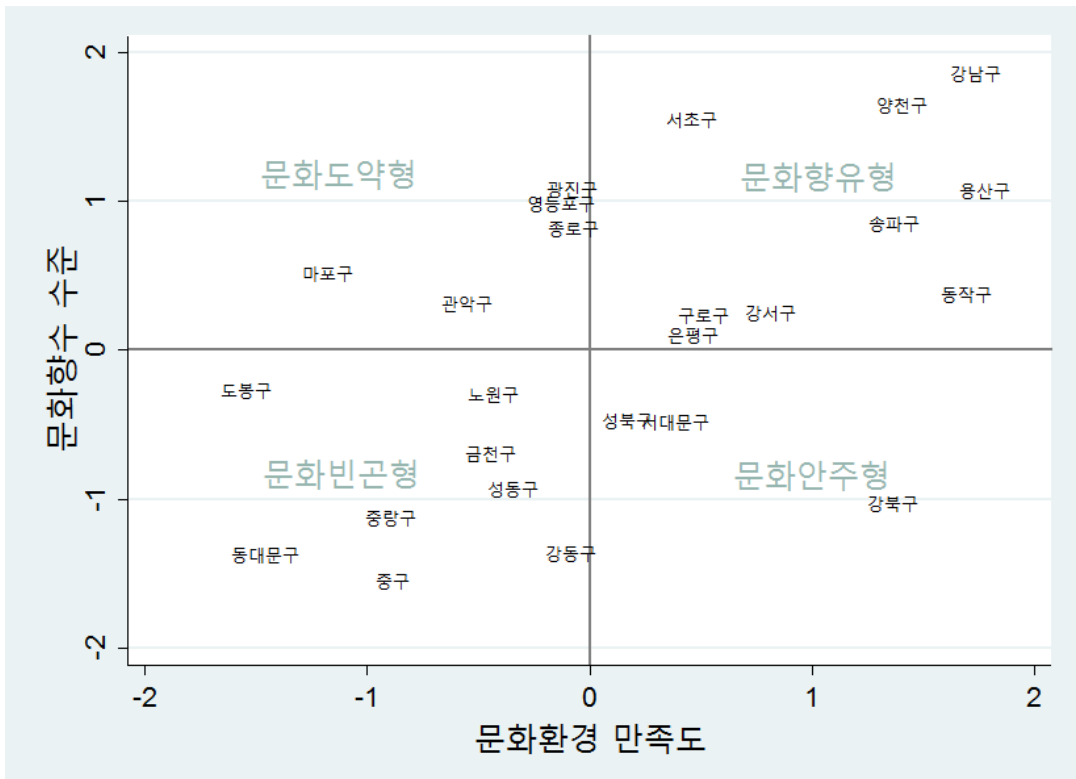
| 변수 | 연도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문화향수 수준 | 2008 | 42,191 | 0.28 | 0.30 | 0 | 2.6 |
| 문화환경 만족도 | 2008 | 42,191 | 3.21 | 0.68 | 1 | 5 |
| 문화향수 수준 | 2012 | 49,758 | 0.23 | 0.25 | 0 | 2.2 |
| 문화환경 만족도 | 2012 | 49,758 | 3.55 | 0.91 | 1 | 5 |

1. 시계열 변화

2008년과 2012년을 중심으로 문화환경의 만족도와 문화향유 수준을 두 축으로 하여 유형화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2>, <그림 3>과 같다. 본 유형화 틀은 서울시 내 자치구별로 문화향유의 수준과 만족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사업의 실시와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문화향수 수준이 높은 자치구일지라도 자치구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낮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을 기준으로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Z-score로 치환하여 표준화한 후 유형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두 축으로 한 유형화 틀을 토대로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문화향유형은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문화향수의 유형 중 가장 선도적인 자치구가 속한 그룹으로 볼 수 있다. 2008년에 문화향유형에 속하는 자치구를 살펴보면,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용산구 등 9개의 자치구가 해당한다. 문화향유형에 속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에서 지방세 징수 자료 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합으로 소득의 랭킹을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강남구는 1위, 서초구는 2위, 송파구는 10위, 양천구는 12위, 용산구는 6위로 나타났다.

<그림 2> 문화환경 만족도 및 문화향수 수준에 따른 유형화(2008년)



두 번째, 문화안주형은 문화환경 만족도는 높지만 문화향수 수준이 낮은 유형을 가리킨다. 문화안주형에 속하는 자치구를 살펴보면, 강북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3개의 자치구가 속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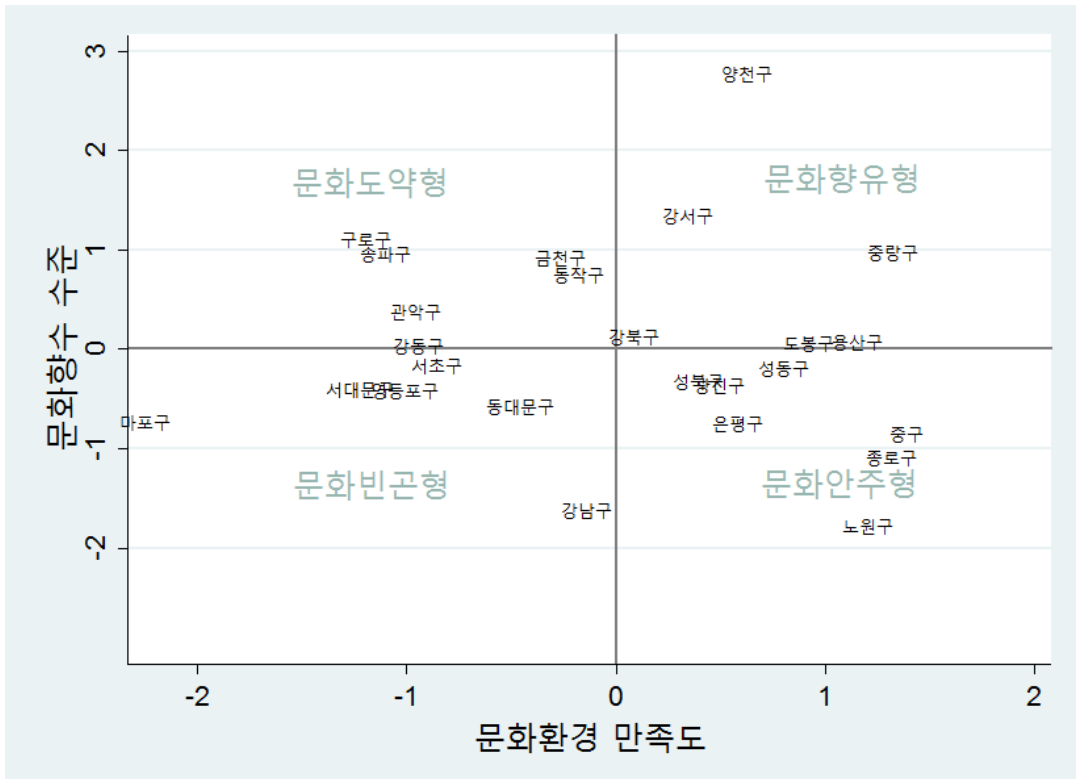
세 번째, 문화도약형은 문화환경 만족도는 낮지만 문화향수 수준이 높은 자치구가 속한 유형이다. 문화도약형에 속한 자치구를 살펴보면, 관악구, 광진구, 마포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 5개의 지역을 제시할 수 있다.

네 번째, 문화빈곤형은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을 의미한다. 문화빈곤형에 속하는 자치구에는 강동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중랑구 등 8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다.

문화환경 만족도가 높은 유형인 문화향유형과 문화안주형은 각각 36%와 12%로 나타나 전체 자치구 중에서 48%가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문화환경 만족도가 낮은 유형인 문화도약형과 문화빈곤형은 각각 20%와 32%로 나타나 52%가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에 따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화향수 수준이 높은 유형은 문화향유형과 문화도약형으로 전체 자치구의 56%에 해당하고 있고, 문화향수 수준이 낮은 유형인 문화빈곤형과 문화안주형은 4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2년을 중심으로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그림 3〉 문화환경 만족도 및 문화향수 수준에 따른 유형화(2012년)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문화향유형에는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양천구, 용산구, 중랑구 등 6개의 자치구가 속해있다. 두 번째로 문화안주형에는 광진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등 7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문화도약형에는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등 6개 지역의 자치구가 속해있다. 마지막으로 문화빈곤형에는 강남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 6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각 유형별로 자치구의 수와 유형간 이동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문화환경 만족도는 -2부터 2까지 2008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있는 반면, 문화향수 수준은 -2부터 3까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양천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와 문화향수 수준 면에서 격차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에는 문화향유형에 속해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2012년에 이르러서는 각각 문화빈곤형, 문화도약형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에는 문화빈곤형에 속해있던 도봉구, 중랑구가 2012년에는 문화향유형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문화향유형에 속해있던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는 2012년에 문화도약형으로 이동하였다. 개별 유형별로 자치구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문화향유형은 2008년에 9개가 해당한 반면 2012년에는 6개로 감소하였고, 문화안주형은 3개에서 7개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문화도약형은 2012년에 1개가 증가하여 6개의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고, 문화빈곤형은 8개에서 6개로 감소하였다. 서울시 내의 25개 자치구의 문화향수 수준과 문화환경 만족도의 평균값으로부터 개별 자치구가 떨어진 정도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2008년에는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이 높은 문화향유형에 가장 많은 자치구 9개가 분포해 있는 반면, 2012년에는 문화환경 만족도가 높고 문화향수 수준이 낮은 문화안주형에 가장 많은 자치구인 7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과 2012년의 문화향유 유형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문화향유형, 문화안주형, 문화도약형, 문화빈곤형이 각각 36%, 12%, 20%, 32%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문화향유형, 문화안주형, 문화도약형, 문화빈곤형이 각각 24%, 28%, 24%, 24%를 차지하고 있어 2008년에 비해 문화향유 유형별로 전체에서 개별 유형이 해당하는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6> 연도별 문화향유 유형화 비교(2008년, 2012년)

| 구분 | 2008년 | 2012년 |
|-------|--|---|
| 문화향유형 |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9개, 36%) |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양천구, 용산구, 중랑구(6개, 24%) |
| 문화안주형 | 강북구, 서대문구, 성북구(3개, 12%) | 광진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7개, 28%) |
| 문화도약형 | 관악구, 광진구, 마포구, 영등포구, 종로구(5개, 20%) |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6개, 24%) |
| 문화빈곤형 | 강동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중랑구(8개, 32%) | 강남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6개, 24%) |

문화정책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비판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7월 1일, 녹색교통, 문화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평가토론회에서는 주요 사업과 공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김상철 국장은 “창의문화도시마스터플랜이 문화산업 지원정책은 폐기되고 대규모 개발산업만 남은 파산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고, 지역공공 문화시설의 지역불균형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향유 욕구는 공공이 아닌 민간영역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원재 사무처장은 문화를 경제성의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한 문화의 발현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유형인 문화도약형과 문화빈곤형에 속하는 자치구가 전체의 52%에 해당하여 개별 자치구의 과반수 이상이 문화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08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소득수준이 1위, 2위, 3위에 해당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문화향유형에 속해있고, 소득수준이 22위, 23위, 24위에 해당하는 금천구, 중랑구, 그리고 도봉구가 문화빈곤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문화환경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부문에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물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2012년을 기준으로 문화향유 유형화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문화향유형과 문화안주형은 각각 24%와 28%로 나타났고, 이는 2008년에 48%에서 향상된 수준으로 전체의 52%가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문화향수 수준이 높은 유형인 문화향유형과 문화도약형은 모두 24%로 2008년에 전체의 56%가 문화향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에 속한 반면, 2012년에는 48%로 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문화빈곤형에 속하는 자치구가 2008년 8개에서 2012년에는 6개로 줄어들었지만, 문화향유형에 해당하는 자치구 역시 2008년 9개에서 2012년에는 6개소 감소하였다. 문화안주형이 2008년에 3개의 자치구가 해당한 반면, 2012년에는 7개로 확대되어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즉,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문화향수 수준이 낮은 문화안주형에 속하는 자치구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6월 7일에 개최된 문화연대 문화정책 토론회에서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서울시 문화정책의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2012). 서울시의 문화정책이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체계가 아니라 단절적이고 개별화된 사업지원에 기반하고 있고, 문화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중심의 나눠주기식 사업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의 개방성과 참여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문화분야 예산의 문제점 중에서 관광산업과 마케팅 지원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 예견된 실패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생활문화, 문화유산, 지역경관 등 중장기적·전체적인 맥락의 관광 자원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근시안적 관광산업 지원을 목표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문화향수 수준이 높은 유형에 속하는 자치구가 증가하지 못하였고, 가장 바람직한 유형에 속하는 문화향유형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치단체별 변화

1) 순위

문화환경의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문화향유 유형을 2008년과 2012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다음으로는 개별 자치구별로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의 순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25개 자치구별로 순위가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종로구의 경우, 2008년에는 문화향수 순위는 8위, 문화환경 순위는 13위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에는 문화향수 순위가 23위, 문화환경 순위가 3위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중랑구는 2008년에 문화향수와 문화환경이 모두 22위로 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문화향수 순위가 4위, 문화환경 순위가 2위로 향상되었다.

한편, 구로구는 문화향수와 순위가 2008년 13위에서 2012년에는 3위로 향상된 반면, 문화환경 만족도 순위는 8위에서 23위로 하락하였다. 강남구는 문화향수와 문화환경 만족도 순위가 각각 2008년에는 1, 2위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에는 각각 24위와 14위로 떨어져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지역별 문화향수 수준 및 문화환경 만족도 순위

| 지역 | 구분 | 2008년 | | 2012년 | |
|------|----|--------------------|--------------------|--------------------|--------------------|
| | | 문화향수 Mean(Rank) | 문화환경 Mean(Rank) | 문화향수 Mean(Rank) | 문화환경 Mean(Rank) |
| 종로구 | | 0.31(8) | 3.18(13) | 0.19(23) | 3.72(3) |
| 중구 | | 0.20(25) | 3.07(21) | 0.20(22) | 3.73(1) |
| 용산구 | | 0.32(5) | 3.45(1) | 0.23(10) | 3.70(5) |
| 성동구 | | 0.23(20) | 3.14(17) | 0.22(14) | 3.66(7) |
| 광진구 | | 0.32(4) | 3.18(14) | 0.22(16) | 3.62(10) |
| 동대문구 | | 0.21(24) | 2.98(24) | 0.21(19) | 3.50(17) |
| 중랑구 | | 0.22(22) | 3.06(22) | 0.27(4) | 3.72(2) |
| 성북구 | | 0.25(17) | 3.22(12) | 0.22(15) | 3.60(11) |
| 강북구 | | 0.22(21) | 3.39(6) | 0.24(9) | 3.57(13) |
| 도봉구 | | 0.26(15) | 2.97(25) | 0.23(11) | 3.67(6) |
| 노원구 | | 0.26(16) | 3.13(18) | 0.16(25) | 3.71(4) |
| 은평구 | | 0.28(14) | 3.26(9) | 0.20(21) | 3.63(9) |

| | | | | |
|------|-----------------|----------------|-----------------|-----------------|
| 서대문구 | 0.25(18) | 3.24(11) | 0.21(17) | 3.40(24) |
| 마포구 | 0.30(9) | 3.02(23) | 0.20(20) | 3.27(25) |
| 양천구 | 0.35(2) | 3.39(4) | 0.35(1) | 3.63(8) |
| 강서구 | 0.28(12) | 3.31(7) | 0.29(2) | 3.60(12) |
| 구로구 | 0.28(13) | 3.27(8) | 0.28(3) | 3.41(23) |
| 금천구 | 0.24(19) | 3.13(19) | 0.27(6) | 3.52(16) |
| 영등포구 | 0.32(6) | 3.17(16) | 0.21(18) | 3.43(21) |
| 동작구 | 0.29(10) | 3.44(3) | 0.26(7) | 3.53(15) |
| 관악구 | 0.29(11) | 3.11(20) | 0.25(8) | 3.44(20) |
| 서초구 | 0.34(3) | 3.26(10) | 0.23(13) | 3.45(18) |
| 강남구 | 0.36(1) | 3.44(2) | 0.16(24) | 3.54(14) |
| 송파구 | 0.31(7) | 3.39(5) | 0.27(5) | 3.42(22) |
| 강동구 | 0.21(23) | 3.18(15) | 0.23(12) | 3.44(19) |

2) 2008년 대비 2012년의 변화 수준

아래의 <표 8>에서는 문화향수 수준과 문화환경의 만족도의 평균값이 2008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008년 대비 2012년의 문화향수 수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하였다. 따라서 문화향수 수준이 개별 자치구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는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지, 하락하였는지에 따라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문화환경 만족도가 상승하면서 문화향수 수준이 하락한 자치구가 17개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이 모두 상승한 자치구가 5개로 나타났고, 문화환경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문화향수 수준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치구가 3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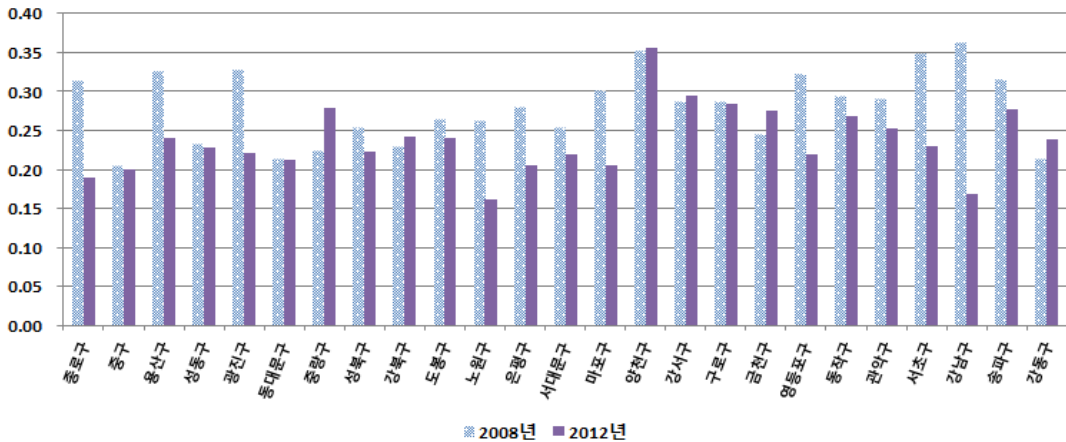
<표 8> 2008년 대비 2012년의 변화수준

| | | 문화환경 만족도 | |
|---------|----|---|--|
| | | 상승 | |
| 문화향수 수준 | 상승 | 중랑구, 강북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5개) | |
| | 유지 | 성동구, 동대문구, 강서구(3개) | |
| | 하락 |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17개) | |

3) 평균변화

<그림 4>는 2008년 대비 2012년의 자치구별 문화향수 수준의 변화를 평균값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양천구의 경우 2008년에는 문화향수 수준이 전체 자치구 중에서 2위에 해당하였고 2012년에는 1위가 되었다. 반면에 강남구의 경우에는 2008년에는 1위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에는 24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25개의 자치구 중 19개의 자치구에서 문화향수 수준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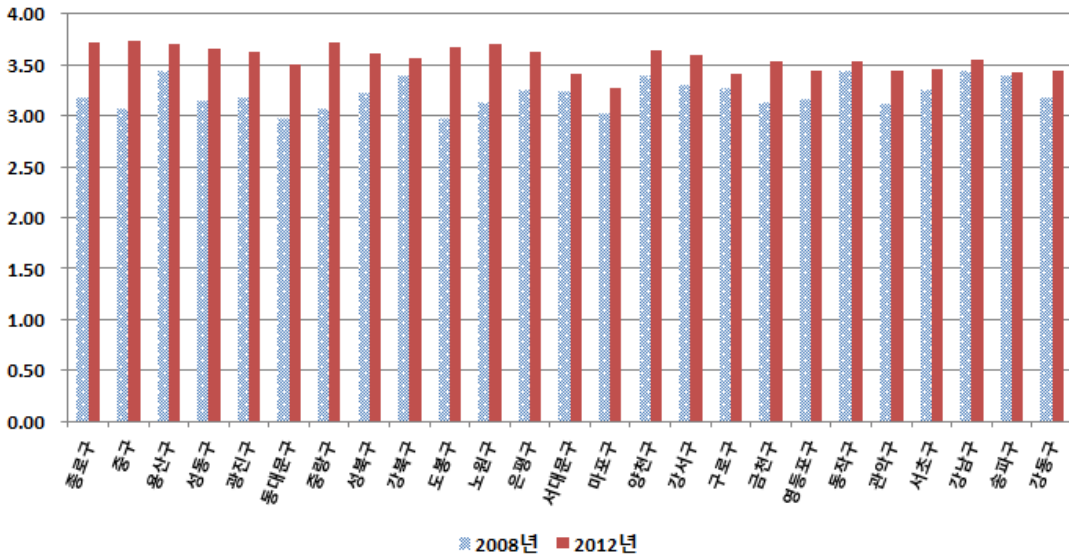
<그림 4> 자치구별 문화향수 수준(2008 & 2012)



이는 서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징수 자료 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합을 토대로 2008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이다.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소득수준이 향상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단순히 소득 수준으로 인한 요인이 아닌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 비교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추후 엄밀한 수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치구별로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문화환경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5>와 같이 25개의 자치구에서 문화환경 만족도가 모두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발간한 2012 서울서베이(2013)를 살펴보면, 문화환경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2006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각각 5.18, 5.37, 5.56, 5.54, 5.93, 6.02, 6.48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결과 역시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25개의 자치구에서 전반적으로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문화 관련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적 가치의 지원 영역은 점차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도 예산을 토대로 이를 비추어보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우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영역의 예산과 사업수는 2009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예산과 사업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자치구별 문화환경 만족도(2008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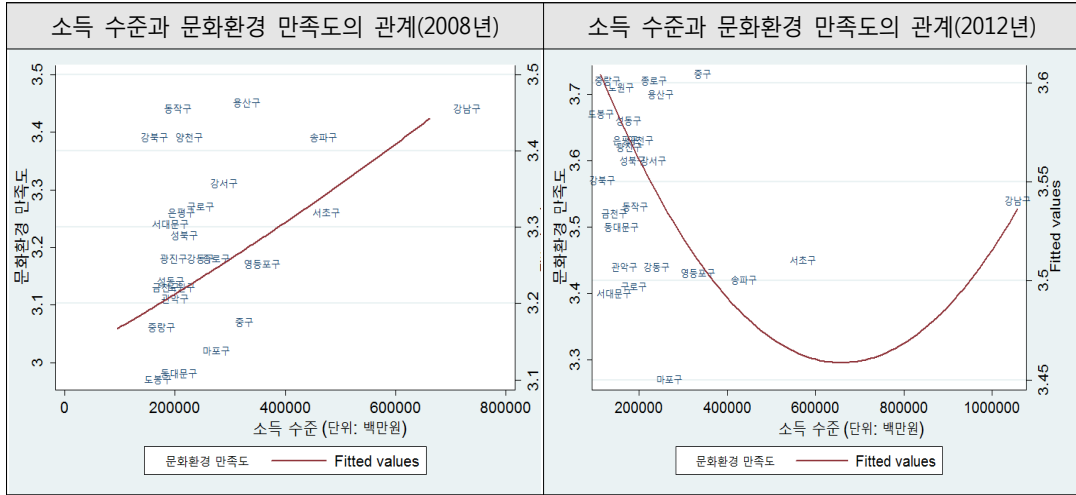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문예연감(2012)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전시는 7,268건(전국의 약 57%)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연은 총 5,273건(전국의 40%)이 이루어졌고, 양악 3,037건, 국악 667건, 무용 540건, 연극 1,029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연은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수치를 살펴보면, 서울 인구는 전국의 5분의 1 수준인데 반해, 공연 및 전시의 거의 절반이 서울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공연 및 전시의 약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이 서울에서 공급되는 문화예술 활동은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가와 더불어 서울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는 재단으로부터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문화환경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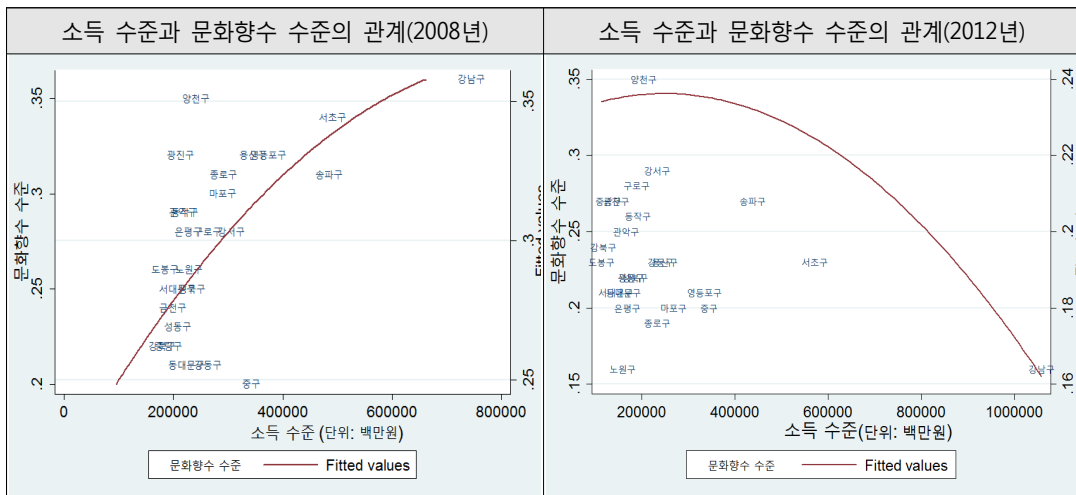
소득수준과 문화환경 만족도, 그리고 문화향수 수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보면 다음의 <그림 6>과 <그림 7>의 결과와 같다. <그림 6>을 통해 소득수준과 문화환경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2008년과 2012년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에는 소득 수준과 문화환경 만족도의 상관관계 값이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인 0.424를 도출하였다. 둘 간의 추세선을 확인해본 결과 우상향하고 있고, 2008년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의 상관계수 값은 0.51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도출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 소득수준과 문화환경 만족도는 -0.176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냈고, 이 차함수로 추세선을 그려본 결과 U자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6〉 소득 수준과 문화환경 만족도의 상관관계(2008 & 2012)



다음으로 <그림 7>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소득수준과 문화향수 수준의 상관계수 값은 0.574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2012년에 소득과 문화향수 수준의 상관계수 값은 -0.314로 나타났다. 이차함수로 표시한 추세선을 통해 볼 수 있듯이 2008년에는 정(+)의 방향으로 이상향 하는 형태이고, 2012년에는 부(-)의 방향으로 우하향 혹은 역U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은 -0.075의 상관계수 값을 도출하였다. 이는 박물관이나 문화의 집, 문예회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양적 증가로 인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반면, 실질적으로 분야별 예술행사 관람횟수의 변화추이가 차이가 없다는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2 문화향수 실태조사, 2012).

〈그림 7〉 소득 수준과 문화향수 수준의 상관관계(2008 & 2012)



이와 같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해외나 타지역의 문화향수에 따른 추가적인 요인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2012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말 및 휴일에 해당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1순위를 검토한 결과, 강남구 지역주민 2,220명 중 38%인 845명이 TV 또는 비디오(DVD) 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행 또는 야외 나들이를 14.7%인 328명이 선택하였으며 3순위로는 12%인 268명이 문화 예술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서초구 역시 전체 지역주민 1,978명 중에서 47%인 930명이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동 1순위로 TV 또는 비디오(DVD) 시청을 하고 있고, 2순위로 11.6%인 230명이 문화 예술관람을 하였으며 3순위로 9.7%인 193명이 독서나 미술, 악기연주 등의 창작적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송파구의 경우에도 1순위는 TV 또는 비디오(DVD) 시청으로 33.3%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11.9%가 종교활동으로 제시하였으며 3순위는 11.4%가 문화 예술관람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주민은 개별적인 문화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 여행 등을 통해 여가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의 자치구에 대해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와 자치구별 수준과 격차, 자치구별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의 문화현상을 해석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상품화와 더불어 여가소비의 규모도 확대되었고, 관람형 문화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는 상위계층의 고급문화로 향유되었던 공연이 대중화되고 있다. 즉, 최근에는 일부 계층에서만 논의되었던 문화의 취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파편화(fragmentation)되고 탈분화 현상(Ontzuiling)으로 변화하였다(이승일 외, 2009: 76). 이러한 현대사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상대적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문화환경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로서 본 연구에서 ‘문화빈곤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객관적인 문화환경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에 따른 결과라 할지라도 해당 자치구민이 실제로 느끼는 바를 토대로 분석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향유 유형의 결과에 주목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주목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강남구의 경우 2008년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동시에 문화향유 수준도 높은 ‘문화향유형’에 속해있었던 반면에 2012년에 들어서 그와 정 반대의 유형에 속하는 ‘문화빈곤형’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원인 파악을 위해 2012 서울서베이 설문문항 중 ‘주말 및 휴일 여가활동’에 대한 내용과 ‘문화활동의 어려움’에 관한 설문 문항을 자치구별로 추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주민의 주말/휴일 1순위 여가활동에 속하는 것은 TV/비디오(DVD) 시청이고, 이어서 여행 및 야외 나들이가 2순위, 연극/영화/연주회 등의 문화 예술관람이 3순위로 나타났다. 즉, 지역 문화시설 이용이 아닌 개별

적인 여행과 오락물 시청을 통한 여가활동 향유 시민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서베이에서 제시된 ‘문화향수 수준’에 대한 하위 설문문항에는 개인적인 여행 등에 관한 내용이 문화 향수 지표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째, 문화향수 수준의 세부 설문 항목별 평균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부록 1>과 <부록 2>의 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문화향수 수준의 유형 중 영화관이 전통문화나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문화향수 행태는 주로 영화관람에 편중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특히 문화향수 수준이 낮은 전통문화 분야에 대해 시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자치구별 문화재 보유 현황에 따른 특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남구 지역주민이 평균적으로 뽑은 문화활동의 어려움 중 세 번째 항목인 관심있는 프로그램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셋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상승한 반면 문화향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5개의 전 자치구에서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실제 이용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은 앞으로 서울시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우선,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문화시설의 양적 확대와도 연관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개최된 문화공연 및 전시회 개최 건수는 2004년 8,410건에서 2012년 12,541건으로 10년 만에 49%가 증가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건수와 지원금액도 2004년 406건 58억원에서 2012년 726건 108억원으로 10년만에 지원건수는 79%, 지원금액은 86%가 증가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프로그램 수 증가와 시설 수 증가는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프로그램 및 시설 확대에 따른 문화환경 만족도에 비례하여 문화향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지역의 문화시설이 2008년까지 양적인 증가를 이루었지만 질적인 증가를 이루었는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지역주민의 소일거리나 강습, 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특성이나 눈높이에 맞는 질적 수준을 고려한 문화정책 프로그램 설계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서울시, 2013: 185). 실제로 본 조사 결과 중에 행사 관람과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음’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영호 외(2015)의 연구에서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돕고 문화향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매개자(Médiateur culturel)”의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지영호 외, 2015: 42).

따라서 문화환경 만족도에 비례하도록 문화향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프로그램 및 이용시설에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의 다양성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또한, 단발성 행사의 반복과 일시적 연출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공통으로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정책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더하여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단위사업 개선이라는 미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세부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문화향유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 현황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화향수 수준을 대변하기 위해 단순히 빈도의 합산 결과를 활용하기 보다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발전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문화향유 유형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문화향유 유형별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화향유 유형의 차이를 도출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호진. (2004).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8(2): 23-40.
- 김종한. (2002). 서울시 문화예술공연시설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도시연구」 3(1): 53-68.
- 김주원. (2003). 문화·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분석: 강원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1): 1-20.
- 김수현·윤기웅·홍윤미. (2013).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수요와 공급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김현·장호성. (2012).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여가 결정요인과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4): 99-113.
- 김호균·김용민. (2013).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라도삼. (2006). 새로운 도시패러다임-문화도시;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 필요조건. 「도시문제」 41(446): 11-25.
- 류태건. (2008). 7개 광역시 문화발전 비교: 지역의 문화생산·문화유통·문화소비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1(1): 203-222.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2012). 「문화연대 서울시 문화정책 토론회 발제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2008 여가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정책 3년 성과 자료집(2008년-2010년)」.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민인식·최필선. (2012).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한국STATA학회.
- 배태영. (2010). 상대적 문화지수 측정을 통한 지역 문화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4(3): 217-239.
- 백대흠·김세용. (2008).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구청별 문화정책,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분석을 중심으로. 「계획계」, 24(12): 225-235.
- 서울문화재단. (2013). 「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민의 문화연구 및 향유실태 조사: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2011).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 서울특별시. (2013). 「2012 기준 서울서베이」. 서울특별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서희석·이동기. (2000). 지역축제의 서비스 질 구성요인이 방문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안 해넘이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2(3): 581-594.
- 이강일. (2007). 서울시 청소년 문화향유 실태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5: 196-217.
- 이대희. (2003). 소규모 문화 시설을 통해 본 지역 문화 정책의 발전 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4): 275-305.
- 이승일·장운정. (2009). 도시민의 문화자본과 문화적 취향분화 - 관람형 여가소비를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1(1): 61-83.
- 이재호. (2007).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지원 현황과 전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소위원회 지역순회 토론회 자료집」: 46-60.
- 이재호·송건섭·김도희. (2010).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문화향유 측정과 문화정책추진 방향 연구. 「지방정부연구」, 14(2): 105-124.
- 정광호. (2010). 미국 교육바우처의 효과 분석: 무작위실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2): 25-64.
- 정광호. (2013).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문화바우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 논문집」, 141-163.
- 정지영. (2009). 지역문화시설에서 문화향수증대를 위한 정책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회논문집」, 34(2): 127-132.
- 정철현·황소하. (2010). 예술마케팅 기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확대 방안. 「서울도시연구」, 11(1): 211-225.
- 정홍익·이종열·박광국·주효진. (2008). 「문화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조광익. (2006). 여가 소비 양식의 분석을 위한 문화자본 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0(1): 379-401.
- 조현성. (2013).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영호·민지은. (2015).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매개’ 및 ‘문화매개자’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9(1): 28-49.
- 최정민·박종웅. 2013. 문화복지 정책의 효과와 수혜자 만족도 연구: 문화바우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 Eckstein, M.L., & Leon, S. (2004). Cultural Policy at the Grassroots. Center for Arts and Culture, July 2004.
- Langsted, Jørn. 1990. Strategies: Studies in Modern Cultural Policy,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O'Hagan, J. W. (1996).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the Arts: The Case of Those with Low Incomes/ Educ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0: 269-282.
- Ragheb, M. G., & Griffith, C. A. (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4): 295-306.

R. J. Patti. (1983).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Managing Social Programs in a Development Context*. N. J.,Prentice-hall.

Spiers, A., & Walker, G. (2009). The Effect of Ethnicity and Leisure Satisfaction on Happiness, Peacefulness, and Quality of Live. *Leisure Sciences*, 31(1): 84-99.

김태형(金泰亨):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2013)를 취득하고,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 공공관리, 정책수단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부개혁의 유형 및 패턴에 관한 국가비교연구: 정부의 역량과 개혁의 강도를 중심으로, 1980-201 (한국행정학보, 2014)”가 있다(taehyung@yonsei.ac.kr).

김미현(金美賢):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2013)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정부, 제도주의 조직론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환경형평성을 고려한 서울시 공원 입지 분석: ArcGIS의 중첩분석 및 접근성분석기법의 응용(지방행정연구, 2015)”, “한국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2002년-2014년 사회과학분야 논문을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2015)”, “한국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성 분석: 조직목표선언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014)” 등이 있다(rladutke@naver.com).

〈부록 1〉 2008년 지역별 문화향수 수준 및 문화환경 만족도 평균

| 지역 | 표본수 | 전통 문화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 | 스포츠 | 문화 향유 수준 | 문화 환경 만족도 |
|------|-------|-------|------|------|------|------|----------|-----------|
| 종로구 | 810 | 0.22 | 0.15 | 0.14 | 0.93 | 0.11 | 0.31 | 3.18 |
| 중구 | 932 | 0.09 | 0.10 | 0.06 | 0.69 | 0.71 | 0.20 | 3.07 |
| 용산구 | 1,467 | 0.15 | 0.12 | 0.10 | 1.18 | 0.06 | 0.32 | 3.45 |
| 성동구 | 1,142 | 0.10 | 0.08 | 0.07 | 0.78 | 0.11 | 0.23 | 3.14 |
| 광진구 | 1,707 | 0.16 | 0.18 | 0.13 | 1.03 | 0.11 | 0.32 | 3.18 |
| 동대문구 | 2,081 | 0.06 | 0.06 | 0.08 | 0.76 | 0.09 | 0.21 | 2.98 |
| 중랑구 | 2,112 | 0.13 | 0.11 | 0.09 | 0.69 | 0.08 | 0.22 | 3.06 |
| 성북구 | 1,373 | 0.16 | 0.10 | 0.06 | 0.84 | 0.08 | 0.25 | 3.22 |
| 강북구 | 1,697 | 0.17 | 0.13 | 0.09 | 0.68 | 0.06 | 0.22 | 3.39 |
| 도봉구 | 1,868 | 0.17 | 0.16 | 0.10 | 0.81 | 0.06 | 0.26 | 2.97 |
| 노원구 | 2,239 | 0.15 | 0.15 | 0.11 | 0.82 | 0.06 | 0.26 | 3.13 |
| 은평구 | 2,028 | 0.14 | 0.14 | 0.10 | 0.83 | 0.17 | 0.28 | 3.26 |
| 서대문구 | 1,367 | 0.09 | 0.10 | 0.09 | 0.86 | 0.12 | 0.25 | 3.24 |
| 마포구 | 1,475 | 0.13 | 0.07 | 0.15 | 0.97 | 0.17 | 0.30 | 3.02 |
| 양천구 | 2,049 | 0.18 | 0.17 | 0.13 | 1.15 | 0.12 | 0.35 | 3.39 |
| 강서구 | 2,257 | 0.17 | 0.13 | 0.08 | 0.97 | 0.07 | 0.28 | 3.31 |
| 구로구 | 1,559 | 0.16 | 0.14 | 0.07 | 0.93 | 0.11 | 0.28 | 3.27 |
| 금천구 | 1,422 | 0.13 | 0.13 | 0.09 | 0.79 | 0.05 | 0.24 | 3.13 |
| 영등포구 | 1,915 | 0.18 | 0.16 | 0.15 | 0.97 | 0.12 | 0.32 | 3.17 |
| 동작구 | 1,218 | 0.12 | 0.10 | 0.08 | 1.00 | 0.15 | 0.29 | 3.44 |
| 관악구 | 1,968 | 0.22 | 0.17 | 0.14 | 0.81 | 0.10 | 0.29 | 3.11 |
| 서초구 | 1,507 | 0.14 | 0.10 | 0.17 | 1.13 | 0.18 | 0.34 | 3.26 |
| 강남구 | 2,196 | 0.18 | 0.17 | 0.19 | 1.11 | 0.14 | 0.36 | 3.44 |
| 송파구 | 1,591 | 0.15 | 0.14 | 0.14 | 0.98 | 0.14 | 0.31 | 3.39 |
| 강동구 | 2,211 | 0.06 | 0.04 | 0.07 | 0.80 | 0.07 | 0.21 | 3.18 |

〈부록 2〉 2012년 지역별 문화향수 수준 및 문화환경 만족도 평균

| 지역 | 표본수 | 전통 문화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 | 스포츠 | 문화 향유 수준 | 문화 환경 만족도 |
|------|-------|-------|------|------|------|------|----------|-----------|
| 종로구 | 1,203 | 0.04 | 0.09 | 0.07 | 0.60 | 0.12 | 0.19 | 3.72 |
| 중구 | 1,090 | 0.04 | 0.11 | 0.07 | 0.64 | 0.12 | 0.20 | 3.73 |
| 용산구 | 1,578 | 0.04 | 0.10 | 0.13 | 0.79 | 0.12 | 0.23 | 3.70 |
| 성동구 | 1,656 | 0.06 | 0.07 | 0.07 | 0.76 | 0.17 | 0.22 | 3.66 |
| 광진구 | 1,977 | 0.02 | 0.09 | 0.11 | 0.71 | 0.16 | 0.22 | 3.62 |
| 동대문구 | 1,484 | 0.04 | 0.04 | 0.06 | 0.77 | 0.13 | 0.21 | 3.50 |
| 중랑구 | 2,191 | 0.08 | 0.13 | 0.11 | 0.83 | 0.21 | 0.27 | 3.72 |

| | | | | | | | | |
|------|-------|------|------|------|------|------|------|------|
| 성북구 | 2,164 | 0.08 | 0.10 | 0.09 | 0.74 | 0.08 | 0.22 | 3.60 |
| 강북구 | 1,979 | 0.07 | 0.12 | 0.07 | 0.84 | 0.09 | 0.24 | 3.57 |
| 도봉구 | 1,898 | 0.09 | 0.12 | 0.08 | 0.78 | 0.11 | 0.23 | 3.67 |
| 노원구 | 2,464 | 0.02 | 0.03 | 0.02 | 0.66 | 0.06 | 0.16 | 3.71 |
| 은평구 | 2,186 | 0.04 | 0.06 | 0.06 | 0.70 | 0.13 | 0.20 | 3.63 |
| 서대문구 | 1,704 | 0.07 | 0.08 | 0.05 | 0.72 | 0.15 | 0.21 | 3.40 |
| 마포구 | 2,007 | 0.96 | 0.72 | 0.94 | 0.65 | 0.11 | 0.20 | 3.27 |
| 양천구 | 2,154 | 0.12 | 0.25 | 0.07 | 1.20 | 0.12 | 0.35 | 3.63 |
| 강서구 | 2,367 | 0.05 | 0.15 | 0.05 | 1.16 | 0.04 | 0.29 | 3.60 |
| 구로구 | 2,286 | 0.08 | 0.17 | 0.13 | 0.91 | 0.11 | 0.28 | 3.41 |
| 금천구 | 1,666 | 0.13 | 0.08 | 0.08 | 0.87 | 0.20 | 0.27 | 3.52 |
| 영등포구 | 2,106 | 0.02 | 0.09 | 0.06 | 0.83 | 0.07 | 0.21 | 3.43 |
| 동작구 | 2,175 | 0.04 | 0.20 | 0.10 | 0.83 | 0.14 | 0.26 | 3.53 |
| 관악구 | 2,483 | 0.06 | 0.09 | 0.09 | 0.79 | 0.21 | 0.25 | 3.44 |
| 서초구 | 1,978 | 0.02 | 0.07 | 0.10 | 0.89 | 0.06 | 0.23 | 3.45 |
| 강남구 | 2,220 | 0.02 | 0.03 | 0.06 | 0.64 | 0.05 | 0.16 | 3.54 |
| 송파구 | 2,654 | 0.10 | 0.10 | 0.10 | 0.88 | 0.18 | 0.27 | 3.42 |
| 강동구 | 2,097 | 0.02 | 0.10 | 0.12 | 0.79 | 0.14 | 0.23 | 3.44 |

〈부록 3〉 2008 서울서베이 설문조사 문항

■ 문화 활동

문9. 귀하는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은 곳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없으면 0회 표시) (비용은 음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하며, 무료로 관람(입장)한 경우 방문횟수에는 포함되며 비용은 제외됨.)

| 항 목 | 연간방문횟수 | 연간 총비용 |
|-------------------------|--------|--------|
| 1) 전통문화공간 방문 또는 전통공연 관람 | 회 | 원 |
| 2) 박물관 | 회 | 원 |
| 3) 미술전시회, 미술관 | 회 | 원 |
| 4)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장 | 회 | 원 |
| 5) 대중음악 콘서트장 | 회 | 원 |
| 6) 영화관 | 회 | 원 |
| 7) 스포츠 경기 관람 | 회 | 원 |

문10.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Abstract

The Type of Citizen of Seoul by Cultural Enjoyment: Focused on Satisfaction of Cultural Environment and Level of Cultural Enjoyment

Kim Tae Hyung

Kim Mi Hye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type of cultural enjoyment for the 25 autonomous districts(Gu)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propose policy implication. According to the typology, there are four types of cultural enjoyment depending on the satisfaction of cultural environment and level of cultural enjoyment. There are the Culture-Enjoyment, Culture-complacency, Culture-jumping, and Culture-poverty types. So we analysis the change of type by autonomous district between 2008 and 2012.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level of cultural enjoyment fall in 2012 compared to 2008, but the satisfaction of Cultural environment is improved in 2012. Thus, Cultural policy is based on cooperation with the discrimination and mutual relationship to establish a substantial goal of cultural policy. And we have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central government – Seoul City – Autonomous district’ to share cultural environment and co-existence between the individual autonomous district.

Key Words: The Type of Cultural Enjoyment, Cultural Environment, Cultural Enjoyment